

[인터뷰-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스마트 농업 전환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한다”

윤 강혜란 기자 | 승인 2025.09.09 16:53

제18회 (사)한국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 회원대회
나주 53.4ha 무인자동화 시범단지
고흥 혁신밸리 조성 박차

나주 53.4ha 무인자동화 시범단지
고흥 혁신밸리 조성 박차



(한국농업신문= 강혜란 기자)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제18회 한국쌀 전업농전남도연합회 회원대회에서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스마트농업을 적극 도입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우 피

해와 같은 기후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하천 정비와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은행 협력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8회 (사)한국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 회원대회 축하 말씀.

한국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 회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날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농업 현장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시는 전남 쌀전업농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남 쌀전업농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우리 쌀 산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1996년 농지 규모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쌀전업농 중심으로 전환하고, 1997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창립을 후원한 이후 지금까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5만호의 쌀전업농에게 15만ha, 6조 2999억원을 지원하는 등 형제 같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공사의 모든 업무 영역에서 핵심 정책 고객이신 쌀전업농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여러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다.

쌀전업농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전남 지역 호우 피해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은.

이번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는 신속한 회복을 위해 본사와 지역본부가 함께 피해 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성금 모금으로 마련한 90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에 기탁했다.

최근 3년간 우리 지역은 가뭄과 홍수가 잦아 자연재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상이변이 농업인의 생존을 넘어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는 500년 빈도의 극한호우가 발생해 막대한 침수 피해가 있었다.

따라서 하천 정비 강화가 시급하다.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지자체 권한에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극한 호우에 대비해 농업 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상향하고, 이수와 치수를 동시에 충족하는 항구적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노후화된 시설은 조기 개보수를 통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본부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치수능력증대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유지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은.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와 쌀전업농단체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협력해야 한다.

첫째, 농지은행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연계해 선배 세대는 안정적으로 은퇴하고, 후배 세대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세대교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둘째, 스마트 농업 기반 전환에 힘을 모아야 한다. IoT 기반 원격 용수관리 등 스마트 인프라를 공사가 구축하고, 쌀전업농은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농업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국가 지원 확대, 노후 시설 개보수, 저수지와 배수장 확충 등 재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농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스마트·디지털농업 도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본부는 AI·ICT 기반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and 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미래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힘쓰고 있다.

2024년 나주에 53.4ha 규모의 무인자동화 시범단지를 조성했으며, 올해는 고흥군을 중심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33.4ha) ▲대규모 창업단지(20.4ha) ▲스마트원예단지(10.9ha) ▲스마트축산ICT단지(20.5ha)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거점을 추진해 전남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중인 재난안전상황관리 시스템(nDIMAS), 원격제어 배수장과 더불어 저수지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해 기후재난에 즉각 대응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혜란 기자